

초기 창업기업 지원 · 기술보호 인식 높인다

전북중기청 · 전북경찰청, 권역별 통합 설명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경찰청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기술보호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경찰청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등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지원사업 및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유출과 침해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기 창업기

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제도와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는 전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총 3차례 열린다.

전주 1권역 설명회는 1월 20일 전주대학교에서 전주대·전주비전대·한국농수산대 BI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주 2권역은 1월 23일 전북대학교에

서 전북대 1·2·3센터, 우석대, 희망전북POST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열린다.

군산 권역 설명회는 1월 28일 군산대학교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군산대·호원대·전북대 4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202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안내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소개 △주요 기술침해 유형과 사전 예방 방안 △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지원 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기술보호 전문가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술침해 예방 전략과 기업 맞춤형 보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초기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술보호 인식 확산과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수박 파손 줄이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농촌진흥청, 그랜트와 공동 연구... 대형 과일 유통 손상 최소화

수박 등 대형 과일의 유통 과정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이 산업체와 협력해 종이 기반의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선보이며,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농산물 손상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포장재 브랜드 '디팜'을 운영하는 ㈜그랜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 수박과 같은 대형 과일·열매채소류의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상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 포장 기업과 함께 체계적인 포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연구 과정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구조를 설계했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포장재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이때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요구와 현장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과일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구조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험 결과, 일반 골판지 포장재보다 최대 하중이 약 13% 향상돼 압축에 대한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기반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1,000상자 기준으로 기존 플라스틱 포장 방식보다 약 33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농촌진흥청과 ㈜그랜트는 이번 포장재 디자인을 공동 출원했으며, 앞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유통 안정성과 경제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최강 한파' 예보... 농작물 언 피해 · 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 농업인 한랭질환 주의 · 관리 요령 제공

농촌진흥청이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와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며, 작물 언 피해 예방과 농업시설물 관리, 농업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부 작물은 생육이 다시 시작되고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닥칠 경우 작물의 동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립 현상도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시설물의 수도 배관 결빙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와 배관에 대한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작물의 경우 난방기 과열이나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하고, 보온커튼과 이중 피복, 난방시설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낮 시간대에는 시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환기를 통해 온도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지 월동작물인 마늘·양파와 맥류 등은 서릿발로 인한 뿌리 노출에 유의해야 한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답압 작업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수원에서는 나무의 중심 줄기와



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온덮개 덮어둔 시설온실 (자료 제공=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요 가지에 대한 보온 관리가 필요하다. 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했다면 벗겨지거나 부직포, 보온 패드로 추가로 감싸주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사 역시 내부 보온 상태와 급수시설, 배관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 시에는 누전·합선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인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가급적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한모와 장갑, 마스크 등 방한용품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기상 정보와 농작물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 상담을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참깨 · 들깨 유용성분, 종자 손상 없이 5분 만에 분석

농촌진흥청, 초분광영상·AI 결합 비파괴 분석 모델 개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용성분 함량이 높은 작물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진흥청이 참깨와 들깨 종자를 손상하지 않고도 유용성분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초분광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종자를 파괴하지 않고 참깨와 들깨의 유용성분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비파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는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참깨의 세사민·세사몰린·리그난 성분과 들깨의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오메가-3 등 총 지방산 함량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500알 종자를 분석하는 데 최대 48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모델을

적용하면 단 1회 촬영으로 5~10분 안에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시간은 대폭 줄어들지만, 정확도는 기존 이화학적 분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종자 선별과 성분 분석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참깨와 들깨처럼 기능 성분이 중요한 작물은 종자를 파괴한 뒤 분석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비파괴 분석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육종 과정에서 종자를 보존하면서도 빠른 선별이 가능하도록 돕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생산기술과 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화 분석 모델에 대한 저작권 2건을 등록 중이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매뉴얼)도 마련했다. 오는 3월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육종부서를 대상으로 시연회와 자동화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현장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취업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대학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취업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2026년도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사·

석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은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사전 협력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특히 혁신성장산업과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취업 연계 학생지원금이 제공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비도 지원된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월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마케

팅 △판로개척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별 상황에 맞춰 전문 컨설팅 단트를 1대1로 매칭해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에 접속해 공고문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